



## 나는 이렇게 육추했다(2)

조 병 찬

(소신중계원)

- ◇...근간 많은 양계인들이 육성율이 낮아 걱정 하는 것을 많이 본다. 재래의 방법으로는 데...◇
- ◇...규모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본인은 한흥목장에서 육추경험 결과 20주...◇
- ◇...령까지 96%의 좋은 육성율을 얻었다. 양계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분이나 대규모 양...◇
- ◇...계를 하고 있는 분에게 육추실을 특별히 만들지 않고도 산란계사(평사)라면 어느 곳에...◇
- ◇...든지 간단히 육추할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저의 육추시설과 육추일기를 소개...◇
- ◇...하고자 한다. ....◇

—연 재—

**제6일령(12월 28일)** : 사료 11g급여, 체중 50.5g 도태 1수.

※ 아침에 일어나보니 적갈색의 똥은 설사를 했다. 원인은 전날의 급격한 사료변화와 지난밤의 강추위로 온도가 낮은 것이 원인 같다.

※ 야간에 중이를 완전히 걸어내고 깔짚이 저분한 곳에 조금씩 위에 깔아줌.

**제7일령** : 수당급여량 13g, 수당 체중 60g  
○폐사 1수(추백리)

※ 오늘은 7일이 되는 날이다. 오전 10시 공복시에 군데군데서 50마리를 붙잡아 체중 측정을 했다. 표준보다 1수당 10g정도 무거웠다.

※ 오늘부터 7일간 음주소독 실시함.  
1,200백액(저맥스를 물 10l당 8cc)으로 7일간

연속으로 음료수 대신 급수한다(소독약은 주사기로 정확히).

**제2주(8~14일령)**

① 온도 32°C 2~3일에 1°C씩 내린다.

② 사료는 하루 3회씩

③ 습하기 쉽다.

깔짚은 자주 갈아줘야 한다.

④ 바닥 면적을 2배로 넓혀주고 샷갓은 약간 올려 준다. ⑤ 털갈이를 시작하면 살이 보여 쪼기가 심하니 실내를 약간 어둡게 하여 주고 상체에 콜탈 등을 바르고 격리시키며 사료에 식염을 약간 첨가한다. ⑥ 점등은 1주간 24시간 점등했으나 이제는 각품종마다의 점등계획표가 있다.

표 2.

<금주의 결산> 제 1주

수	수	체	중	사	료
주초 마리수	4,100수	금주초의 체중	35g	금주의 총급여량	
금주의 폐사수	20 "	주말의 체중	60 "	25.3kg	
" 도태수	10 "	중체량	25 "	1수당 급여량	
주말마리수	4,070 "	평균체중	60 "	5.8g	
도태 및 폐사율	0.7%				

가 무창계사점등법 -1) 첫 1주간은 24시간 중 야 점 등 2) 2주부터 22주까지 8시간 점 등 3) 22주부터 13시간으로 급증하고 32주까지 계속 4) 32주부터 매주 15분씩 연장하여 20시간 도 달할때까지 계속.

나 내려 올리기 점등방법 (9월~3월 사이 부화된 병아리)

1) 1주간 24시간 점등하고 2주에 18시간 15분으로 하고 매주 15분씩 감소시켜 22주령에 13시간이 되게 한다.

2) 22주령에 매주 15분씩 20시간에 도달될 때까지 시키며 20시간이 되면 도태시까지 계속 함.

다) 자연일조 점등방법 (늦은 봄부터 여름에 부화된 병아리)

1) 육성시는 점등을 하지 않고 22주령이 되면 13시간으로 일시에 올려주고 32주령까지 계속

2) 32주부터 계속 15분씩 연장 20시간까지 계속

○환기 ① 발육이 왕성하고 호흡량, 배분량이 많아져 실내공기가 탁하기 쉬우니 환기를 잘 시켜주고 자리깃은 자주 깔아 주어 청결히하고 깔짚은 야간에 조용히 작업하는 것이 좋다.

② 터널식 육추사의 면적을 2배로 확장하고 앞쪽의 비닐덮개를 상하로 2~3개 가운데 갈라 커튼식으로 앞으로 밀어 환기창을 크게 만든다.

③ 금주부터 서서히 일광욕을 시킨다. 일광욕은 살균소독과 건강에도 좋으며 비타민 D<sub>3</sub>가 형성된다. 첫날에 30분 2일에 1시간 3일에 1시간 30분 등으로 하되 갑자기 많은 시간을 시키면 해롭다.

④ 청초급여-봄여름에는 연한 청초를 잘게 썰어 사료에 섞어주면 식욕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되고 식체예방이 되며 비타민 AD<sub>3</sub>의 공급이 된다.

겨울철에는 아카시아잎 킴프리, 크로바 등 분말을 사료에 0.3% 첨가한다.

#### 8일령(12월 30일)

① 사료는 5회로 줄이고 모이통은 초생추용으로 완전히 바꾸었다. ② 외기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내온도가 높아지므로 환기를 많이 시켜 줌. 사료총급이량 58kg 수당 14.5g

#### 9일령(12월 31일)

① 털갈이가 시작한다. 털이 거칠어지고 어깨 목 부분이 털이 많이 빠져 쪼는 놈이 생겼다. 영양제 0.2%로 급수함.

사료 62kg, 수당 15.5g 체중 70g

○사료에 아카시아분말 3% 첨가하여 급이시킴.

○새벽점등 후 날개를 펴고 운동을 많이하여 먼지가 많이 일어나 환기를 시켜줌.

#### 제10일령(72년 1월 1일)

사료 68kg 수당급이량 17g 체중 70.5g

○털갈이가 한창 진행중이다. 가슴, 다리, 목 부분이 털갈이 시작되었다.

#### 제11일령(1월 2일)

○각 칸마다 약추를 골라 별도로 수용함. 강추와 약추가 섞여 자리면 약추는 사료를 잘 찾아 먹지 못하여 잘 자라지 못한다. 병아리를 붙잡을 때는 놀라지 않게 갈퀴를 사용하여 조용히 작업한다.

사료 70kg 수당 17.5g 체중 70.8g

#### 제13일령(1월 3일)

○야간에 쥐가 들어와 병아리 3마리를 물어 죽였다.

○야간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 병아리가 많이 놀란다.

사료 74kg 수당 18.5g 체중 75g

#### 제13일령(1월 4일)

○야간에 눈이 많이 와서 사료운반에 큰 불편을 받았다. 겨울이나 장마때는 여유있게 준비해야 한다.

○쥐가 4마리 죽임. 계사주위에 쥐구멍을 막고 쥐약을 놓았다.

사료 79kg 수당 20g 체중 80g

#### 제14일령(1.5)

사료 84kg 수당 21g 체중 85g

초생추 급이기를 자동급이기로 교체함.

※ 뉴켓슬레방 1차 접종 실시함.

○접종방법을 음수투여 비강접종, 근육주사 등 방법이 있으나 음수투여 법으로 실시했다. <방법> 접종하기 전날 저녁 계사내의 사료와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벽에 물통을 깨끗이 닦고 예방약을 희석하여 골고루 먹도록 한다.

희석방법은 예방약 1병에 우물물(증류수) 5cc를 넣어 혼합하고 이것을 물 3,000cc에 교루 섞어 병아리 4주령 이하는 1마리당 6cc 중추 13주령미만은 1마리당 15cc 정도 준다.

<주의사항>

- ① 5°C의 냉장고에 보관하고 햇볕을 쬐이지 않은 것.
- ② 물그릇은 소독약이 묻거나 소독물로 닦아서는 안 된다.
- ③ 우물물을 사용하고 수도물은 금한다.
- ④ 빠른 시일에 먹도록 골구루 준다<물통을 증가시킨다.>

제 3 주(15~21일령)

- ① 표준온도는 29~30°C. 따스한 낮에는 창을 열고 환기에 힘쓰며 깔짚을 자주 깔아 건조에 힘쓴다.
- ② 털갈이가 진행중이라 몸이 허약해져 콕시딕과 각약증 호흡기 등이 유발하기 쉬운 기간이니 일광욕과 운동을 많이 시키고 식욕이 떨어지면 청초를 더주고 온도를 높여 식욕을 돋군다.
- ③ 각약증이 발생하면 따로 수용해서 칼슘, 간유 청초 등을 더 주고 사료에 비타민 AD<sub>3</sub>를 더 첨가 한다.
- ④ 실내에 셋바람이 들어오면 호흡기병을 일으키기 쉬우니 주의한다.
- ⑤ 금주부터 점등은 6.00부터 18.00시까지 12시간 고정 점등을 실시한다.

제15일령(1월 6일)

○금일부터 모이통을 자동급이기로 완전 교체하고 사료주는 회수를 3회로 줄임.

제16일령(1월 7일)

○병아리의 식욕이 떨어졌다. 원인은 모이통을 다른 것으로 갑자기 바꾸었고 외기온도의 급변으로 실온이 낮았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연탄가스 거꾸로 새어나와 병아리의 상태가 나빠짐.  
○사료를 조금씩 자주 주고, 영양제 테라마이신을 물 10ℓ에 5g 투약했다.

제17일령(1월 8일)

○깔짚을 헤쳐 물통과 모이통 안으로 잘 들어간다. 깔짚을 20cm로 약간 길게 잘라 깔음.

제18일령(1월 9일)

○만성호흡기의 증세가 나타남 야간 조용할 때에

가륙가륙 하는 소리가 나며 심하면 눈물을 흘리고 입에서 악취가 난다.

원인은 날씨의 급변으로 실내 온도의 변화가 심했고, 바람이 심해 연기가 거꾸로 새어나오며 날씨가 추워서 환기를 잘 시키지 못하였으며 관리상태가 불량 했다.

② 만성호흡기는(C. R. D) 자체로 인한 피해보다 CRD를 앓고 병아리가 약할 때 다른 병원균이 침입해서 발병하면 이차 감염의 피해를 크게 본다.

※ 금주의 결산<제3주>

- 주초의 마리수 4,070수
- 금주의 체중 90g
- 수당 급이량 17.2g
- 금주의 폐사 6수
- 금주의 도태 6수
- 폐사율 0.3%

제 4 주(22~28일령)

온도는 주초 27°C 주말 25°C 기온의 변화에 따라 낮에는 폐운 밤에는 보운으로 폐운에 적응하도록 한다. 온도가 표준보다 낮아도 병아리의 상태가 좋으면 적온이 되고 표준보다 높아도 활동상태가 좋으면 적온이 된다. 체란계를 강건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샷갓 주위에 온도를 높여주고 실내의 온도는 표준보다 1~2°C 정도 낮게 해주어 강건히 키워야 질병에 강하고 좋은 산란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콕시딕이 나타나기 쉽다. 증세는 처음에 병아리에 원기가 없고 날개를 늘어뜨리며 졸며 흰색, 질갈색, 조크렛의 똥을 누며 4~5일이 지나면 혈변을 싸고 죽는다. 처음 증세가 보이면 사료에 DOT 암푸롤 등, 예방약을 사료에 첨가하고 심하면 설파제를 물 10g 당 20g 비율로 투약다.

○봄, 여름에는 깔짚을 끊어내고 다시 깔아주며 겨울엔 깔짚을 뒤집어 주고 햇볕이 잘 들어 오게해서 건조시키고 썩은 곳은 걸어내고 자주 깔아 준다. 장마철엔 바닥이 습하기 쉬우니 건조에 힘쓴다.

○음수겸용 소독약 1000배액으로 희석하여 찬정 벽 출입구에 살포한다

제5주(29~35일령)

○병아리의 상태에 따라 폐온한다 갑자기 폐온하면 압사로 죽는 수가 있으니 야간에 자주 헤쳐 주고 샷장은 4~5일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

○발육이 왕성해서 익사하기 쉬우니 물통과 모이통을 부족하지 않게 넣어 준다.

○육추사를 전과 같은 방법으로 2차 확장 실시한다.

○35일령엔 뉴젯슬 2차 접종을 전과 같이 실시함.

○류코사이토준병이 발생하기 쉽다. 증세는 병아리의 경우 갑자기 각혈하고 차차 사망하여 피하출혈로 자색을 띄고 녹색똥을 싸고 사망하는 수가 많으므로 모기가 발생되기 전 4월초부터 12월까지 예방약 피리메타민제제를 사료량의 0.1%로 배합 투약한다.

#### 제6주(36~42일령)

○사료를 중추사료로 교체시킨다. 갑자기 변경하지 말고 5일간엔 걸쳐 교체시킨다.

※ 각약증 증세가 3수 나타남, 원인은 사료의 영양분 불균형과 녹사료품질로 비타민 AD<sub>3</sub>가 부족한 것 같다.

사료에 건초와 비타민-AD<sub>3</sub> 첨가

#### 제7주(43~49일령)

○온도는 20~18°C 정도로 엄동기를 제하고는 폐온하고 자온에서도 익숙하도록 환기를 잘 시켜 강건히 키워야 한다.

○갑자기 추위가 닥쳐와 실내 온도가 10°C 이하로 내려가도 모이를 잘 먹고 활동이 활발할 때 그 동안 자온으로 단련되어 강건하게 키운 덕분이다. 채란계는 고온으로 키운 닭보다 약간 낮게 키우므로 질병에 강하고 튼튼한 닭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엄동기라도 육추가 가능함을 체험했다.

○지난 주에 폐온했던 난로와 샷장을 철거함.

#### 제8주(50~56일령)

○중추로서 본격적인 성장을 하게 되므로 좁은 계사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방목장이 있는 경우 밖에서 모이주는 코로니 계사에 수용하는 것이 좋다. 양질의 목초가 자라는 방목장에서 기르면 사료를 절약하고 튼튼한 체격의 닭을 만들 수 있어 건강한 닭이 된다.

#### 제9주(56~63일령)

##### ○P. D액으로 구충을 실시함

※ 병아리에 기생충이 많으면 원기가 상실되고 날개는 축늘어지며 털은 광택을 잃고, 식욕이 부진하여 설사를 하여 성장 발육이 부진하고 식약하므로 피해가 크다.

○방법은 저녁물을 줄 때 2시간 걸석시켰다가 투약하고 새벽일찍 일어나 계분을 걸어서 내리는 때 물통을 많이 넣어서 골고루 먹게 한다.

○진드기 벼룩이 보이면 분무기로 D. D. V. P. 를 100~500배 희석하여 계사의 지붕, 벽, 케이지 바닥, 사료창고에 흠뻑 뿌린다. 3~4일이 지난 후 300~800배액으로 닭에게 직접 살포한다. 사료는 완전히 제거하고 이, 빈대, 진드기가 심할 경우 2~3차례 실시한다.

※ 흑두병에 대하여 →평사에 사육하면 흑두병이 발생하기 쉽다. 이 기생충은 6월상순~8월상순에 다발하여 닭이 식욕과 기운이 없어지고 활발치 못하며 우모가 일어나고 황백색의 연변 또는 녹색의 설사변을 하고 발육이 불량하며 벼슬이 흑색으로 변한다. 치료약은 “웁사이드”를 물에 0.02%로 7~10일간 투약한다.

○예방대책 ① 사료의 비타민 A. B 부족시 감열율이 높으니 영양배합을 잘 한다.

② 깔짚은 자주 뒤집어 건조 시킨다.

③ 밀사는 기생충 발생을 다발게 한다.

#### 제10주(64~70일령)

○카니발리즘이 발생하기 쉽다. ① 원인은 영양적으로 식염, 단백질 섬유부족과 사료와 물의 부족으로 일어나며 밀사할 때 잘 나타나며 100수당 40일령-100일령의 경우 20~30명이 필요하다.

※디비킹으로 방지할 수 있다. 디비킹으로 얻는 이익은 ① 사료 손실 방지 ② 쪼는 버릇 ③ 계군의 대소의 차가 없이 균일이 자란다. 시기는 4~6주령 10~12주에 실시하는데 ④ 여름엔 서늘할 때 실시하고 ⑤ 닭은 가볍게 다루어야 하고 ⑥ 사료와 물은 충분히 주어 부리의 충격을 막아야 한다. ⑦ 닭의 건강이 나쁠 때는 피하고 3~4일전부터 비타민 K를 급여하면 출혈방지에 효과가 크다. 윗부리는 코부리까지 길이  $\frac{2}{3}$ 를 자르고, 아래는 약간 지지준다.

○계두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실시하나 모기가 없을 때는 70일령이 지나 실시하면 한번 접종하여 일생면역이 된다. 접종침으로 날개의 얇은 막에 관통접종한다.

두하지 않은 것은 재접종 해야 한다.

제11주(71~77일령)

○변을 항상 주의해서 질병의 유무를 알아본다.

○똥은 우유 빛 설사는 추백리로 오인하기 쉬우나 단백질 소화불량과 야간에 한냉하거나 잠자리가 불편할 때 나타나므로 원인을 제거한다.

①연한 녹색변은 야간 한냉 소화불량으로 아침에 많다.

② 진한 녹색변은 류코사이토증의 초기증상이니 피리메타민 제제 0.1%로 사료에 투약한다.

③ 붉은 설사로 짙은 녹색변은 호흡기질환 누켓슬의 초기 증상이다.

표 7. 질 병 구 분

병명	수주	원인
C R D	7주	3~5주 발병함
추 백 리	18"	1~2주 발생
폭 시 돌	6"	4~7주 발생
카니발리즘	17"	1~2주, 6~9 발생
각 약 증	2"	5~6주 발생
뇌 척 수 염	2"	3~4주 발생
마 렉 병	22"	9~18주 발생
기 타	4"	전 기간

※ ① 방역 철저와 위생적 관리로 마렉병이 적었다.

<육추실은 본장에서 300m 떨어진 곳임>

② 1주일 내에 관리 부주의로 물통에 빠져 죽은 것 과 난로에 타 죽은 것이 많았다.

### 어디에서 구할것인가! 양계경영일지

제일사료, 한일사료, 흥성사료, 대한사료, 천일곡산, 한국축산, 영남제분, 내한신약, 녹색자, 한국가아길, 소신중계원, 신기농장 신성부화장, 부대농장, 천호부화장, 동일부화장. 에서는 그들의 고객을 위하여 양계경영일지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

한국가금협회 서울·중구양동44-28  
22-3571 · 3572

## 가금진료전문 협성가축병원

서울 청량리 오스카극장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주간 (92) 7779  
야간 (96) 9231

가축예방약 치료제 사료첨가제  
소독약 기타 일체 총판

서울·청량리 오스카극장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주간 (92) 7779  
야간 (96) 9231

# 협성가축약품공사

